두산 용병 더스틴 니퍼트(왼쪽)의 재계약과 예비 FA 김현수(가운데)·오재원의 연봉 계약이 해를 넘긴다. 2015년 1월 두산의 행보가 바빠질 전망이다.

두산-니퍼트 온도차 결국 새해에 재협상

김현수·오재원 연봉협상도 내년으로

두산, 2014년 구단 주요업무 모두 종료 예비 FA 김현수 '특급대우' 여부 궁금증 군문제 해결 오재원도 연봉 인상폭 기대

'라스트 벗 낫 리스트(Last But Not Lea st)'. 순서가 뒤로 밀렸지만, 그렇다고 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의 관용어다. 두 산에게는 오히려 그 반대다. 가장 중요한 계약들이 해를 넘겨 2015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용병투수 더스틴 니퍼트(33)와의 재 계약, 그리고 '예비 FA(프리에이전트)'인 외야수 김현수(26)와 내야수 오재원(29)의 연봉 계약 얘기다.

두산 고위 관계자는 22일 "올해 구단의 주요 업무들이 모두 종료돼 이들과의 계약 은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됐다. 새해에 다시 작하겠다는 의미다.

와의 재계약이다. 두산은 니퍼트와 최근까 다시 협상할 생각이다. 두산의 2015년 1월 지 적극적인 협상을 벌였다. 니퍼트는 2011년부터 두산에서 4년간 뛰면서 통산

52승(27패), 방어율 3.25을 기록한 투수. 실 력이 검증됐고, 한국야구 적응도 오래 전에 마쳤다. 대안을 찾기 어려운 최고의 재계약 카드다. 그러나 연봉 문제로 의견 차가 컸 다.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 결국 내년이 밝으면 다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내년 시즌을 끝으로 FA 자격을 얻는 팀 의 간판 김현수에 대한 대우도 중요하다. 김 현수는 올해 연봉이 4억5000만원이었다. 타율 0.322, 17홈런, 90타점을 올려 연봉에 걸맞은 활약도 했다. 두산은 이미 "1년 뒤 F A가 되면 무조건 잡겠다"는 방침을 천명했 다. 그 전에 FA 프리미엄을 얹어 연봉으로 '특급 대우'를 해주는 게 먼저다. 구단들이 예비 FA 선수를 붙잡고 싶은 마음을 가장 간절하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아직 계약은 하지 못했다. 김현수와 구단은 한 차 례 협상 테이블 앞에 앉았지만, "새로 출발 하는 마음으로 내년에 다시 만나자"며 상을 물렸다. 오재원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연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봉이 1억7000만원인 오재원은 2012인천아 1월에 새 마음으로 다시 신중한 행보를 시 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돼 금메달을 목 에 걸었다. 군 대체복무 혜택까지 받아 미래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과제는 니퍼트 가 더 밝아졌다. 두산은 오재원과도 새해에 이 바빠지게 생겼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배구협회장 단독출마 김성회 사장 '과반수득표 실패'

대의원총회…총 21표 중 찬성 10표로 낙마 직접적 자금지원 액수 밝히지 않아 실망한듯

2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7대 대한배구협회장 선거 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했던 김성회(58) 한국지역 난방공사 사장이 과반수득표 획득에 실패해 낙 마했다. 제35대와 제36대 회장을 연임한 임태희 회장이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마친 뒤 10월 22일 사임하면서 잔여임기(2년 2개월) 동안 배 구협회를 이끌 새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김 후보는 10표를 얻는 데 그쳤다. 과반수는 11표 였다. 대한배구협회 회장 선거 역사상 1표로 당 락이 갈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총 23명의 대의원 가운데

전북과 세종시가 불참해 배구협회 산하 6개 연 맹과 15개 시도지부 회장 등 21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협회정관 제3장 제9회 임원 및 회장 선출 규정에 따르면 새 회장은 출석 대의원 과반 수 득표가 필요했다. 대의원들은 찬성 10표, 반 대 10표. 무효표 1표를 던졌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대한배구협회는 박승수 부회장 체제를 당 분간 이어가면서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하 는 임시대의원총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대의원 투표에 앞서 벌어진 5분간의 회장 후 보 정견 발표에서 김성회 사장은 협회의 재정확 충을 비롯해 4가지 공약을 내세우며 대의원들의 표심을 호소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후보의 공 약보다는 협회의 최근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 해 직접적인 자금지원 액수를 밝히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 장영달 임태희

회장 등 정치인 회장체제 아래서 배구협회가 발 전하지 못하고 갈수록 어려워졌다는 학습효과도 이날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의 원들은 투표 전에 몇몇이 주장했던 '새 회장 추 대과정에서 특정 인사들이 인사권을 독점했다는 소문'에 반감을 가졌고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모 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는 회장 후보에게 얼 마를 지원할 것인지 공증하라고 했다'는 소문도

이날 투표를 위해 바레인에서 비행기를 타고 참석할 정도로 많은 배구인들의 관심을 모았던 새 회장 선임은 예상하지 못한 부결사태로 깊은 수렁으로 빠졌다. 단독후보가 낙마해 앞으로 누 가 선뜻 새로운 배구협회장 후보로 나서기도 어 려운 상황이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현대건설 선수들이 22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14~2015 V리그 KGC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한 뒤 기뻐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세트스코어 3-0으로 승리하며 선두에 복 수원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jur

현대건설 '공격 삼각편대' 53득점 폭격…선두 복귀

최하위 인삼공사에 3-0 완승



〈폴리-황연주-양효진〉

두에 복귀했다.

하면서 시즌 2승11패를 기록하게 됐다.

현대건설은 외국인 레프트 공격수 폴리를 축 현대건설이 '공격 삼 으로 라이트 황연주와 센터 양효진의 파괴력이 각편대(폴리-황연주-양 매서웠다. 현대건설이 25점으로 1세트를 가져 갈 동안 인삼공사를 13점으로 막았다. 득점분포 가 이상적이다. 폴리가 6득점하는 동안 양효진 현대건설은 22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과 황연주가 각각 5점과 3점을 올렸다. 셋의 공 NH농협 2014~2015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경 격점유율은 80%. 폴리가 40%를 차지했고, 양 을 세트스코어 3-0(25-22, 25-20, 25-17)으로 기에서 최하위 인삼공사를 맞아 세트스코어 효진(24%) 황연주(16%)가 나머지를 분담했다. 꺾었다. 이날 승리로 승점 3점을 추가한 삼성화 3-0(25-13 25-22 25-10)으로 완승했다. 10승째 2세트에선 폴리가 해결사로 나섰다. 23-22에서 를 거두며 승점 27을 기록한 현대건설은 도로공 후위공격과 오픈공격으로 직접 마무리했다. 사(승점 26·9승6패)와 기업은행(승점 25·9승 3세트에서 현대건설은 힘을 냈고, 인삼공사는 5패)을 따돌리고 선두에 복귀했다. 반면 인삼공 공수 모두 흔들렸다. 현대건설은 3세트에서 사는 총체적인 부진을 벗지 못하고 9연패를 당 10점만 내주며 이날 승리를 챙겼다. 경기를 끝

내는 데 78분이면 충분했다. 폴리가 양 팀 최다 인 29점(블로킹 3점, 서브에이스 2점)을 올렸고, 양효진이 15점, 황연주가 9점을 따냈다. 반면 조 이스가 고립된 인삼공사는 고전했다. 조이스가 10점에 그쳤고, 백목화는 7득점했다. 24.14%로 떨어진 공격성공률로 승리를 엮는 데는 역부족 이었다.

●삼성화재, 한국전력 3-0 제압…다시 선두 복귀

한편 이날 남자부에서 삼성화재는 한국전력 재는 12승4패, 승점 35점으로 OK저축은행(승 점 32점·12승5패)을 제치고 다시 단독선두로 올 라섰다. 5위 한국전력은 2연패를 당했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의체에 '치명적결과' 초래 때일정제2014.1,29)

동물에 먹이는 "항생제" 인체에도 영향 미친다 (국민일보 2014.03.04)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8097884&cp=nv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인체에 치명적 결과 초래 (매일경제 2014.01.29.)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3209

항생제 과다투여 생닭 파문 ○○○ 공식 사과 (SBS 2013, 01, 11)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1576823

"친환경닭이 특별한 이유" (2011.5.9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702&idxno=436138

"가축사료에서 항생제를 몰아내야 하는 이유" (2010.8.9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369253&cloc=olink|article|default

"즐겨먹는 통닭은 항생제 덩어리?" (2010.7.25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72509393784080

"항생제 전혀 안 쓰고 기른 닭, 조류인플루엔자도 얼씬 못해" (2009.11.20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91745455&code=950312

식한이하기 캠페인, 1.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 2. 음식점의 위생불량
- 3. 식당, 술집 공기오염 노출 높아
- 4. 치킨무 실체공개

자연을 담은

- 5. 충격적인 생맥주의 비밀
- 6. 가구, 알고보니 발암물질 우글

